

갤럭시로 보는 세상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

사진이 진실했던 시대는 끝났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의 치맥 회동은 AI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AI 관련 산업이 오늘의 멀 거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AI의 등장이 산업 혁명을 넘어서는 인류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인한다. 실제로 사진, 영상 등의 시각 매체에서 AI는 이미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촬영부터 편집, 감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데다 압도적인 작업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유행했던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으로 인물 사진 바꾸기’가 좋은 예다. 심지어 생성형 AI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풍경과 장면들을 창조하기도 한다.

사진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AI 사진의 현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고 하지 않던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AI를 품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AI 관련 기능들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사진을 바꾼 삼성 갤럭시의 AI 기능



↑ 장면별 최적 촬영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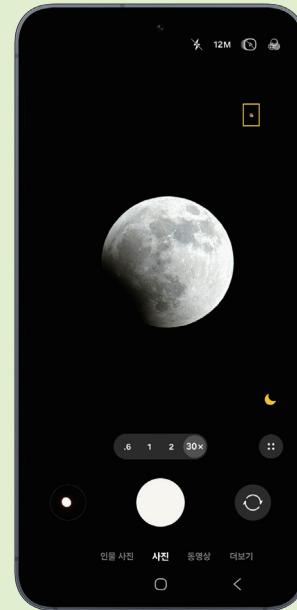


↑ 장면(야경) 인식

1. 장면별 최적 촬영

화면 속 장면을 분석해 최적의 밝기, 색 설정값을 적용하는 기능이다. 풍경 촬영에서는 채도 값을 높여 하늘과 바다, 숲, 꽃 등의 색을 강조하고 인물 사진은 노출을 조절해 피부를 더 밝게 표현한다. 밝은 배경 때문에 인물이 까맣게 표현되는 역광 촬영에도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동물, 음식, 문서, 야경 촬영 등 다양한 장면에 맞는 설정값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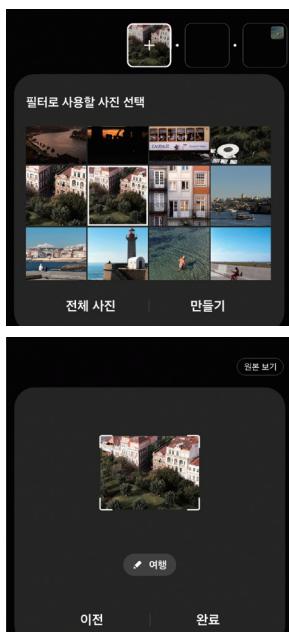
AI 기술의 발전에 맞춰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 역시 진화하고 있다. 딥 러닝 기술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한 달 촬영이 대표적인 예다. 화면 속 달을 AI가 인식하면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고, 손떨림 보정 기능으로 달을 화면 중앙에 고정한다. 사용자가 촬영 버튼을 누르면 다중 촬영을 활용한 화질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열 장 이상의 사진을 연속 촬영한 뒤 합성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미리 학습된 달 표면 데이터를 적용하면 일반 촬영보다 선명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일반 촬영(①)과 나만의 필터(②) 촬영 이미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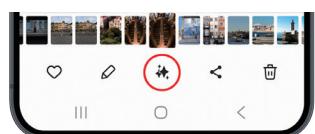
2. 나만의 필터



↑ 나만의 필터 등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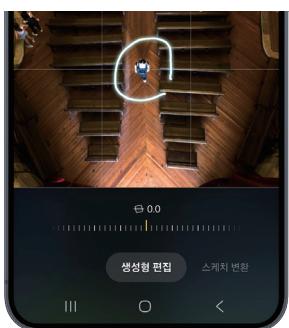
매력적인 사진을 발견했다면 나만의 필터로 등록해 보자.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도 훌륭한 재료다. 등록 과정은 간단하다. 카메라 앱의 필터 선택 화면에서 [필터 만들기(+)] 메뉴를 실행한 뒤 예제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사진을 분석한 뒤 필터를 생성한다. 갤러리의 편집 메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필터를 추가할 수 있다.

원본 사진의 노출 설정, 명암 대비, 색 표현이 적용된 필터를 사용하면 촬영과 동시에 원하는 분위기의 사진이 완성된다. 후보정 작업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편집 앱 구매에 쓰는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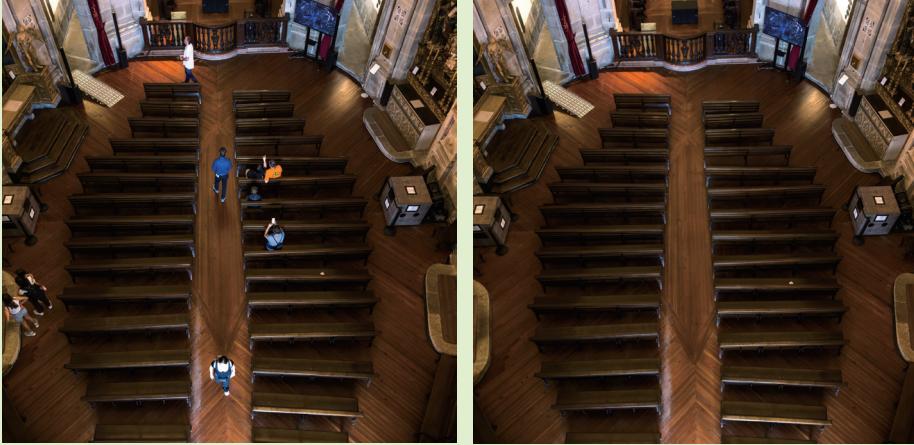
↑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포토 어시스트

3. 포토 어시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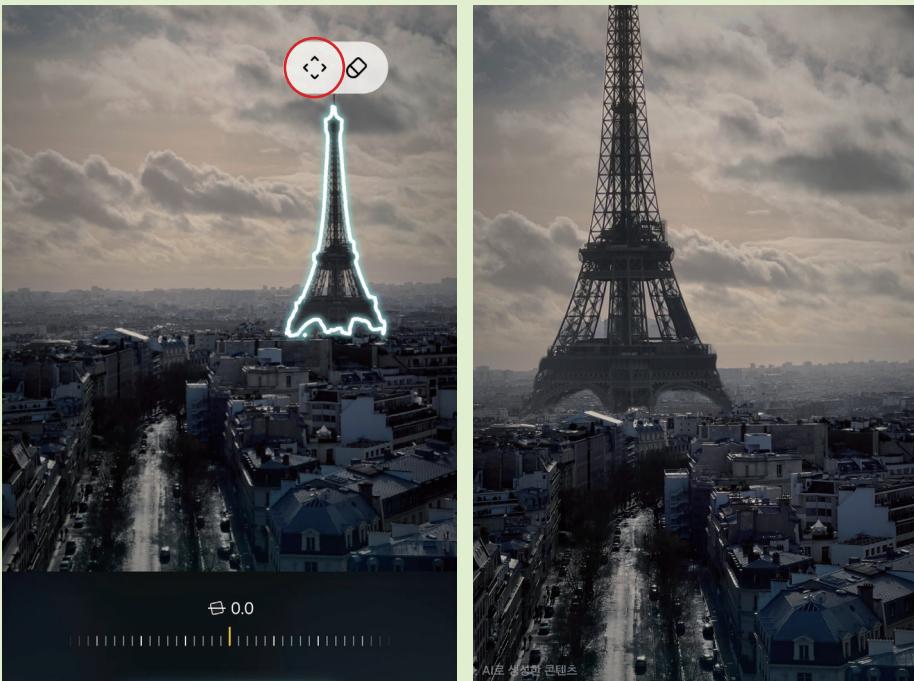


↑ 생성형 편집을 활용한 AI 지우개 기능

갤러리 앱의 포토 어시스트를 실행하면 생성형 AI 기술 기반의 편집 기능들을 누릴 수 있다. 사용자와 소통하며 사진을 완전히 바꾸거나 새롭게 창조한다는 점에서 ‘누린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생성형 편집, 스케치 변환, 인물 사진 스튜디오 등 세 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편집된 이미지에는 ‘AI로 생성한 콘텐츠’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 생성형 편집을 활용한 AI지우개 기능



⇨ 생성형 편집을 활용한 크기/위치 변경

생성형 편집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AI 기능이었던 AI 지우개를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생성형 AI 도입으로 사진 속 행인이나 장애물이 있던 영역을 복원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피사체를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법은 기존 AI 지우개와 비슷하다. 지우고 싶은 피사체를 터치하거나 주변에 원을 그리면 AI가 해당 피사체를 인식해 배경과 분리한다. 화면에 표시된 두 개의 메뉴 중 지우개 아이콘을 터치하면 선택된 영역은 지워지고 주변과 어울리는 이미지로 채워진다. 지우개 왼쪽의 이동 메뉴를 선택하면 피사체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스케치 변환을 활용한 사진 편집

스케치 변환 기능은 생성형 AI의 백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으로 그린 형태를 AI가 인식해 실사 형태로 사진에 합성하는 기능이다. 노을이 내려앉은 도시 풍경 위에 시옷(ㅅ)과 같은 모양을 그리면, 곧 날아가는 새 폐가 추가되는 식이다.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생성된 피사체의 크기와 밝기, 색감도 사진 속 장면과 잘 어울린다. 인물 사진에서는 옷차림을 바꾸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재미 삼아 몇 번 그려 보면 화면에 표시되는 ‘스케치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중.’이라는 문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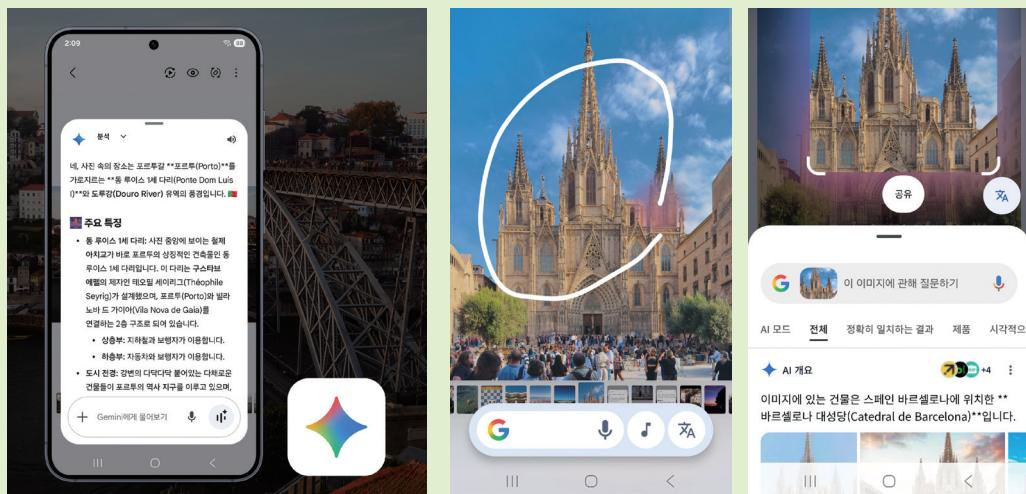


인물 사진 스튜디오에서는 인물 사진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다. 일러스트, 수채화, 스케치, 3D 캐릭터 옵션의 개성도 뚜렷하다.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도 장점. SNS 프로필용으로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AI 사진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AI가 인물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 특성상 인물 사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활용한 사진 편집

4.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서클 투 서치는 구글 AI 어시스턴트 Gemini와 연동된 이미지 기반 검색 기능이다. 홈 버튼을 길게 눌러 Gemini를 실행한 뒤 화면에 원을 그리면 작품명, 사진 속 장소, 제품 등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이미지 검색보다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작은 단서를 이용한 추측에도 적극적이다. 이 외에도 화면 속 글자를 번역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리 제목을 찾는 등 사진 외의 검색 기능들도 제공된다.



↑ 구글 Gemini와 연동된 서클 투 서치 기능

촬영과 편집 그리고 감상까지. AI는 이미 우리가 사진을 즐기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진실이 담긴 사진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의 파도를 기대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세상을 보고 기록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맞춰 바뀌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 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